

# 생산조절만이 81년도

# 불황 이기는 길

— 강제환우 등 일시적 방법으로는 해결안돼 —

- 일시 : 1980. 12. 27
- 장소 : 대한양계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김영환 (전호부회장 전무)
- 강세춘 (광일부회장 사장)
- 김순재 (가축위생연구소 계역연구관)
- 김인식 (퓨리나 농장장)
- 김정웅 (전호부회장 상무)
- 김정인 (신촌 사료 상무)
- 김지태 (광명농장 사장)
- 신정일 (유일농원 영업부장)
- 신정재 (과학사료 사장)
- 임병규 (서울사료 부장)
- 사회 : 노영한 (본회 편집국장)

### 81년 최대과제는 지속적인 불황타개

노영한 : 오늘 바쁘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한것은 불황속에서도 다사 다난했던 1980년을 함께 결산해 보고 다가오는 1981년의 양계업계는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81년은 아무래도 계속될 불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의 쫓점이 될터인데 금년도 결산과 아울러 내년도 전망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죠. 먼저 가장 관심의 쫓점이 되는 사료부문을 말씀해 주세요.

임병규 : 금년도 사료업계는 정말 여러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업계가 숙원하던 가격자유화가 실시되었고 또한 3차례에 걸친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양축가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사료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정인 : 내년도 사료가격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7,8월을 고비로 내릴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현재 옥수수 가격이 대단히 좋기때문에 생산량이 자연히 많아

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자연 내리지 않겠는가 하는겁니다.

**김영환** : 사료가격을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양제인들은 내년도의 전망을 잘몰라 노제값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채란계를 강제환우 시키는 등 81년도에 대한 무모한 희망을 갖고 있는것 같기 때문입니다.

**김세춘** : 맞습니다. 지난번 지금이 마치 강제환우의 적기인것처럼 강제환우를 시킬것을 촉구하여 채란 양제인들이 강제환우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아마 곧 풀리겠지 하는 희망은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배합사료 7, 8월 까지 20% 인상있을것

**김정인** : 내년도 7, 8월까지의 사료가격 인상요인을 추정해보면 옥수수가 220~230\$까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두박도 20% 인상요인이 있고해서 모두 합쳐 20%정도는 더 오를 것이라 하는것이 현명한 추정일 것입니다.

**임병규** : 거기다가 환율변동까지 가산하면 제 생각으로는 30%까지의 인상요인은 있다고 보아지는데 옥수수 가격이 지금 현물시장에서는 210\$이 못됩니다. 앞으로도 안정기준 가격이 210\$정도 까지만 지켜준다면 인상폭을 20%정도로 보는것이 좋겠지요.

**신정일** : 이번 1월초의 인상을 제외하고입니까?

**임병규** : 네

**신정재** : 그렇다면 월간양계 지난호에 실렸던

육계생산원가가 kg당 1,140원 계란은 57원 가까이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과연 산물 가격이 그렇게 올라 줄까 걱정이군요.

**김정웅** :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는 일단 소비위축이 되었다가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사이클을 겪게 되겠군요.

**김영환** : 사료공장에게 부탁하고 싶은것은 양제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를 보는데 사료공장에서도 같이 맞들을 수가 없는지 하는 겁니다.

### 사료가격 자율화 양축가, 사료공장 다같이 잘 이용해야

**김정인** : 사료가격의 자율화가 이루어진 후 사료공장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많은 소비자들의 감시로 인해 사료공장이 전보다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해서 양축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은사료를 값싸게 구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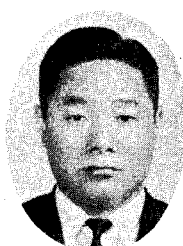
**김영환** : 그러나 일반 양축가들이 사료공장들이 자율화를 자신들이 이롭게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혹은 역시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사료가격 인상때에도 많은 사료공장들이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가 몇몇 사료공장에서 가격을 별로 올리지 않으니까 다시 인하시킨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올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올렸다 하는 느낌을 뒷받침해 주었죠.



(김영환)



(김세춘)



(김순재)



(김인식)



(김정웅)



(김 정 인)



(김 지 태)



(신 정 재)



(신 정 일)



(노 영 한)

**김정인** : 그렇지 않았던 공장도 많았습니다. 자율화 이후 1차 인상때에는 사료공장들이 단합되어 인상폭을 거의 일정하게 올렸지만 2차 인상때 그 단합은 깨지고 명실상부한 자율적 인상이 되었지요. 이때 사료공장들이 갈팡질팡 했던것은 인상내용이 상당히 기술적이었고 대두박 같은 것이 가격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때문이었습니다.

### 사료업계 년초 자금핍박 심할것

**김정인** : 사료업계의 자금핍박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c.c.c차관 상환 시기도 가까워 오고 있으며 원료를 구입할 때 2.3개월 어음으로 결재를 하다가 지금은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며 양축가에게 의상 판매기간이 연장되는등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 81년도에도 자금압박은 심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김순재** : 그렇다면 사료공장들이 가격문제 등으로 사료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아무래도 등한시 하겠군요.

**강세춘** : 제가 직접 사료를 사용하며 느끼는 것은 최근 사료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인데요, 사료의 품질이 나쁘다는 소문이 돌면 대금을 받기도 힘들고 팔리지도 않고 하니 품질경쟁이 등한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영환** : 사료품질 중 위생문제를 빼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살모넬라나 아플라톡신 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김순재** : 살모넬라에 관한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부패한 사료로 인하여 바이오틴이 파괴되어 피부에 각화현상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었는데 현재 전보다 사료의 질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제육심으로는 위생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장측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에서 나오는 각종 독신 문제로 양계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사료위생에 관한 인식 좀더 철저해져야

**신정재** : 사료위생문제는 메이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단미사료자체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요?

**김순재** : 그렇습니다. 사료공장의 제조공정도 문제가 있지만 단미사료를 수집할 때 얼마나 위생적으로 처리되었는가 중요합니다. 어분을 구입할 때 수집과정을 조사하는 등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김정인** : 사료위생적측면에서 볼때 펠렛 사료 등 가열처리된 특수사료 사용이 아주 이롭습니다. 미국의 시험법에 의하면 가루사료의 경우 살모넬라가 14%나 검출되었는데 펠렛사료는 완전히 free한 상태여서 세균감염방지에 효과적인 가공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 1)

1980년 전국 배합 사료 월별 생산량

(M/T)

품 목	1	2	3	4	5	6	7	8	9	10	11
초 생 추	2,438	2,535	4,237	4,789	4,864	3,738	3,235	3,550	3,947	4,015	2,507
중 추	7,209	4,241	4,522	6,427	8,275	8,137	7,892	6,595	6,606	8,611	7,942
대 추	17,025	13,999	11,137	8,775	10,709	12,694	15,872	15,307	14,351	15,468	15,301
육성사료소계	26,675	20,775	19,896	19,991	23,848	24,569	26,992	25,452	24,904	28,094	25,750
산 환	112,437	80,432	92,281	90,456	97,547	88,534	87,611	92,516	91,628	108,744	77,234
부 전 기	7,785	6,078	12,890	17,601	19,956	19,941	18,974	14,697	12,133	12,552	10,695
부 후 기 I	16,335	5,328	9,909	21,436	30,332	33,785	38,389	32,865	26,434	23,703	17,331
부 후 기 II								451		588	282
소 계	24,120	11,406	22,799	39,037	50,288	53,726	57,363	48,013	39,237	36,843	28,308
양계사료합계	163,229	112,613	134,976	149,484	171,683	166,829	171,973	165,981	155,769	173,681	131,292
양 돈	107,112	64,422	64,414	55,986	53,000	49,486	51,563	59,959	58,379	72,971	60,040
나 농	47,831	36,292	42,691	43,682	43,057	39,261	40,092	44,355	33,314	50,085	40,226
비 육	34,386	19,170	18,962	20,090	20,204	18,077	21,344	29,503	29,926	34,877	26,901
기 타	93	66	112	123	83	82	99	42	110	65	151
총 계	352,651	232,563	261,155	269,365	288,027	273,735	285,073	299,840	287,488	331,679	258,611

\* 10월 사료생산량은 10% 이상의 가수요가 반영되어 있음

현재 펠릿사료가 생산은 되고 있으나 가격 문제로 별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영환 : 그런데 어분을 살때 단백질만 계산하지 않고 세균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정인 : 단미사료공장에서 그 검사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 외부로부터의 세균감염 요인을 차단시켜 사양을 하여도 노계에 가서 놀라울 정도로 살모넬라가 많이 검출되는 것을 볼 때 일반 농장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사료곰팡이로 인한 위험 요인 많다

노영환 : 살모넬라도 그렇지만 아플라톡신도 작년의 경우로 보아 소홀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금년 미국의 이상기후로 금년 옥수수에 아플라톡신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는

가하는 우려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임병규 : 미국의 한 주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가 되어도 안 팔을 수도 없고하니 그 양을 명시해서 사가했다면 팔겠다고 했었는데 그 양은 많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김인식 : 사료에 곰팡이가 피어있어도 그것이 아플라톡신의 위험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곰팡이가 피어있어도 그것어 가축에게 위험한 유해 곰팡이가 아닐 경우 먹어도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곰팡이가 핀 옥수수가 도입되어 닭에게 먹었을때 그것이 아플라톡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김정용 : 사료품질관리 실무위원회라는 청문회의 성격을 띤 모임이 얼마전 열렸었는데 지금까지는 사료하면 가격과 성분에만 주로 신경을 써 왔었는데 이번에는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고 이 문제를 사료관리법에 아주 명문화시켜 규제하는 안

〈표 2〉 산란용 종계 입식 현황 (80. 10. 30현재)

월·분기	1978	1979	1980	비 고
1	81,600	42,630	45,290	
2	57,800	43,810	30,417	
3	73,488	43,800	35,500	
¼·분기	212,888	130,240	112,207	
4	76,270	50,050	31,690	
5	124,611	40,475	73,950	
6	101,885	54,717	60,240	
¾·분기	302,766	145,242	165,880	
상반기계	515,654	275,482	278,087	
7	66,615	28,460	90,550	
8	15,650	43,700	53,475	
9	6,650	29,050	36,905	
¾·분기	88,915	101,210	180,930	
10	14,110	35,367	35,000	80년10월까지누계
11	18,360	36,386		494,017
12	23,610	40,390		15,000Hyline수입
¾·분기	56,080	112,143		30,000Babcock수입
하반기계	144,995	213,353		
년 계	660,599	488,835		
¼분기	100%	61.17%	52.70%	
증감		100%	86.15%	

- \* 1. 1978년 10월까지 입식량 : 618,679수
- 2. 19 8년 " " 412,059수 (100%)
- 3. 1980년 " " 494,017수 (120%)

이 만들어 졌더군요.

이안에 의하면 처벌규정도 강화시켜 개팔 적이기는 하나 원천적으로 규제할수 있도록 했더군요.

**임병규**: 단미사료의 가격이 불안정한것은 물 량이 부족할 때 값이 뛰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두박이나 어분이나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사료원료 수입창구 다변화시급**

**노영한**: 그렇습니다. 이번 대두박 생산 3社 가 가격을 상당히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 는데 사협에서 대두박을 350\$에 수의계약 하여 수입했기 때문에 20원으로 인상폭이 비교적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3〉 육용 종계 입식 현황 (80. 10. 30현재)

월·분기	1978	1979	1980	비 고
1	85,136	105,260	54,660	수입 52,300
2	145,717	150,310	107,140	수 포함.
3	198,210	248,400	133,940	상반기계
¼·분기	429,063	503,970	295,740	
4	193,180	145,980	166,200	
5	204,500	120,830	131,700	
6	125,140	120,140	95,000	
¾·분기	522,820	386,950	392,900	
상 반 기	951,883	890,920	688,640	
7	75,960	109,885	113,490	
8	49,530	114,850	83,080	
9	49,930	91,755	96,500	
¾·분기	175,420	316,490	293,070	
10	42,190	118,515	95,000	
11	58,850	96,390		
12	58,240	80,215		
¾·분기	159,280	295,120		
하 반 기	334,700	611,610		
계	1,286,583	1,502,530		

334,700

- \* 1978년 10월까지 입식량 : 1,169,493
- 1979년 " " : 1,325,925 (100%)
- 1980년 " " : 1,096,710 (82.2%)

**김정웅**: 사협이 대두박가격을 안정 시키는데 기여했듯이 옥수수도 수입창구를 다변화 시키는 것도 시급히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180\$하던 옥수수가 우리나라에서 5 월까지의 사용분을 구매하자, 시카고 곡물 시장의 옥수수 가가 200\$이상으로 치솟았 다가 구매가 끝나자 다시 180\$선으로 내 렸다가 현재는 다시 올랐습니다.

**신정일**: 사료가격만 자율화 시킬것이 아니고 사료원료의 수입과 그 시기도 모두 자 율화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정인**: 모든 제도개선도 시급하고 사료공장 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양축가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기록이 필요 합니다. 아직도 어분이 많이 섞인 사료는

무조건 좋은 사료라는 수박 겉 핥기 식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아직 가격이나 혈연관계 단골등을 구매결정의 중요한 동기로 되어있는데 현재와 같은 불황에 생산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비 절감이 중요한데 사료효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좋은 사료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인식** :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것은 사료가격 자율화 이후 계속적인 사료가의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율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가격의 자율화는 품질향상이나 소득증대 그리고 한국축산 발전을 위해 더 할 수 없는 좋은 기회이므로 이 자율화는 계속 당연히 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노영환**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양계업의 기본이 되는 사료에 관해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이제 부화부문에 관해 육계, 채란의 순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 80년 육계 부화경기는 무난하였다

**김정웅** : 솔직히 말씀드려 금년도의 부화업은 물론 그 부화장의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로일러의 부화는 괜찮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생추 가격이 나뉘던 때는 6월 하순부터 7, 8, 9월 중순까지 뿐인데 1, 2, 3월달은 절대적인 공급부족으로 육계병아리 가격이 사상유례로 없이 좋았고 그 이후 c.c. 생산량은 계속 증가해서 6, 7, 8, 9월에는 공급과다 현상이 나타났으며 육계의 경우 절대량으로 보아서는 작년 못지 않은 양이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부화장이 유리하도록 비수요기에 육계공급이 줄어서 오히려 육계가격이 좋았으며 c.c. 가격도 좋았고 부화업도 좋았다는 것이 80

〈표 4〉 산란용 cc 생산 잠재력

월·분기	1979	1980	1981	비고
1		2,716,908	3,514,914	
2		2,842,833	3,700,172	
3		2,856,903	2,730,000	
¼분기계		8,416,644	9,945,086	
4	4,133,655	2,882,746		
5	3,572,011	2,816,344		
6	3,252,601	2,795,419		
¾분기계	10,958,267	8,494,509		
상반기계		16,911,153		
7	3,010,985	2,811,354		
8	2,879,010	2,705,833		
9	2,545,440	2,675,715		
¼분기계	8,526,435	8,192,902		
10	2,373,640	2,576,477		
11	2,345,802	2,865,254		
12	2,581,114	3,090,107		
¼분기계	7,300,556	8,531,838		
하반기계	15,826,991	16,724,740		
년 계		33,635,893		

년도의 경기에 관한 총평이고 81년도를 예측하여보면 79, 80년도에 와서 90%이상의 숫자가 잡혔으리라고 보는 중계입식에 대한 양계협회 통계에 의하면 80년 10월까지의 중계입식량이 110만수로서 79년의 132만수에 비해 19%나 줄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c.c. 생산 잠재력은 80년도 보다 20%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게 제 추측입니다. 그다음 79년도에 공급되었던 중계들은 금년 사료가격 인상으로 6월 하순 부터 9월까지 상당량 도태가 되어 지금의 중계들은 80년도의 젊은 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0년 1/4분기 30만수 2/4분기 40만수가 입식되었는데 4/4분기에 들어와서 가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c.c.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것은 중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즉, 79년도 중계는 다 나갔다는 것을 뒷받

〈표 5〉

계란 생산 예고 지수

월·분기	1978	1979	1980	1981
1		936,183.1	1,049,797.4	968,419.9
2		957,084.5	1,049,249.0	
3		989,234.7	1,045,232.7	
1 / 4 분기		2,882,502.3	3,144,279.1	
4		1,023,783.2	1,028,837.9	
5		1,049,558.5	993,068.6	
6	758,195.9	1,086,386.4	955,090.1	
2 / 4 분기		3,159,728.1	2,976,996.6	
상반기 계		6,042,230.4	6,121,275.7	
7	815,723.7	1,151,600.5	954,683.3	
8	885,216.9	1,202,366.0	961,238.8	
9	928,384.4	1,206,327.5	957,656.7	
3 / 4 분기	2,629,325.0	3,560,294.0	2,873,578.8	
10	942,777.2	1,166,162.9	943,937.9	
11	930,474.0	1,102,070.5	926,682.4	
12	925,980.7	1,058,743.8	938,325.5	
4 / 4 분기	2,799,231.9	3,326,977.2	2,808,945.8	
하반기 계	5,428,556.9	6,887,271.2	5,682,524.6	
년 계		12,929,501.6	11,803,800.3	

〈표 6〉

초생추 사료 소비 추세

(M/T)

월	1977		1978		1979		1980
1	1,714		2,585		3,925		2,438
2	2,008		3,047		4,994		2,535
3	3,970		4,937		6,121		4,237
1 / 4 계	7,692		10,569		15,040		9,210
4	4,241		5,340		5,516		4,789
5	3,856		5,413		4,770		4,864
6	2,749		4,095		2,873		3,738
2 / 4 계	10,846		14,848		13,159		13,391
상반기 계	18,538	56.6%	25,417	55.3%	28,199	62.5%	22,601
7	2,055		2,736		2,074		3,235
8	1,937		2,780		2,288		3,550
9	2,104		3,056		3,074		3,947
3 / 4 계	6,096		8,572		7,436		10,732
10	2,475		3,449		3,271		4,015
11	2,655		4,087		3,259		
12	2,995		4,400		2,954		
4 / 4 계	8,125		11,936		9,484		
하반기 계	14,221	43.4%	20,508	44.7%	16,920	37.5%	
년 계	32,759	100%	45,925	100%	45,119	100%	

\* 80년 10월 기준 작년 1~10월, 초생추 사료량보다 4%감소 (37,348 / 38,906 : 80 / 79)

침 해주고 있죠. 80년도 GPS가 11,000수 정도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종계가 50만 수 정도 생산이 될텐데 이에 의하면 내년도 c.c.공급량은 20%정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가 특별히 위축 되지 않는 한 그런대로 81년도 부로일러 부화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춘** : 육계부화 부문의 80년도 결산을 해 보면 경기는 확실히 무난하였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웅상무의 말씀중 종계가 덜 입식되었다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9년 마레병 때문에 종계가 많은량 폐사 되었고 그 다음 80년도에는 종계에 별 사고가 없어 81년도 병아리 공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종계의 강제환우 문제인데 작년 6, 7, 8월 병아리가 남아돌자 많은 종계들을 환우시켰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벌써부터 부로일러 병아리가 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월에는 병아리가 많은 량이 남다가 2월 후반기부터 적당한 수준이 되겠으나 부화장들이 제반 요인으로 원가 압박을 받고 있어서 금년도 부로일러 부화전망은 80년도 보다는 81년이 나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금년 육용 초생추는 적정키브로 생산될것 강제환우의 복병도 염두에 두어야

**김영환** : 79년도 부로일러 종계의 입추 패턴과 80년도 부로일러 종계의 입추 패턴이 어떻게 다른가하면 과거 79년도에는 80년도 2월에 병아리가 생산피크를 이루도록 입식이 되었어요. 그러나 80년도에는 81년 5월에 생산피크를 이루도록 종계 입식이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업계가 필요로 하는 생산키브는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화장이나 양계인들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양축이 모두 적정한 가격이나 이윤을 낼 수 있는 고무적인 패턴

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복병으로서 종계의 강제환우가 얼마나 되었는가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나타난 현상인데 부화업을 하는 사람들이 종계의 강제환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버렸었습니다. 산란계만 보더라도 불과 8, 9월 2개월간 c.c.를 팔고 9월중순부터 산란계 예약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11월말이나 12월까지 병아리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입추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판매가 중단되니까 2개월만 팔고 종계를 도태할 수가 없으니까 강제환우를 해버린거죠

### 일시적 효과노린 강제환우로 업계혼란 될 우려 있다

사실상 종계의 부족등 불가피할 때 강제환우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수는 있으나 질병위생면에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김순재** : 종계에 강제환우를 했을때 스트레스로 인한 영양성질병의 우려도 있고 만성적 질병도 문제가 되니 무조건 환우시키면 질병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김인식** : 소련의 시험예에서도 한계군을 강제환우 시켰는데 백혈병 증세를 보이거나 잠복기에 있는 닭들은 자연 도태되어 완전히 백혈병이 없어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산성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에서 환우이후 사료섭취량이 15%까지 올라갔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 요즈음 같이 사료가격이 높을때 사료섭취량이 10% 이상 증가되는 것은 불리한 사양기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로일러 종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신중히 환우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임병규** : 강제환우를 하게 되면 2년 이상을 한 계사에 있게 되는데 아무리 소득을 철저히 한다해도 질병을 줄이기가 힘이 듭니다. 또, 표면상으로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



지긴 하나 내부에 병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세대에 제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강제환우가 우리나라에 종계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 종계의 부족으로 1, 2, 3차까지도 강제환우를 했고 또 계속되던 부화업의 호황으로 일반화 되었으나 간접적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값이 떨어지면 강제환우를 시키는 등 일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식은 별로 좋은 것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노영한 :** 강제환우는 더욱 연구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로일러 업계의 전망을 들어보죠.

### 부로일러전망 어느정도 낙관적

**김인식 :** 제가 계산한 수치로는 81년 3월까지 부로일러 cc가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신정일 :** 부로일러 cc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도 적정할 것이라는 추측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4년간의 육계초생추 생산 잠재력에 관한 통계를 살펴 보면 77년도에 月 200~300만수 78년도에 500~800만수 79년도에 1,000만수, 80년대에 1,000만수였다가 6, 7월에는 1,200만수 9월에는 900만수 10월에는 800만수로 이 800만수의 수치는 81년 5월까지 계속되리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81년도 북병아리는 일부품종에서 300원까지 시세가 오르리라 하는 것이 제 추측이고 내년도 육계시세는 비교적 무난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도계법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드린 말씀입니다.

### 양계업계의 호황, 불황은 우리업계가 해결해야

**노영한 :** 양계산업이 전진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가격의 진폭이 큰 것이고, 실제 양축가들도 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우

리업계가 스스로 시정할 문제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김세춘 :**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고 업자 스스로는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종계입식 수수나 초생추 생산 출하통계가 부정확한 것이 문제입니다. 새해에는 협회에서 전담직원을 2~3명 두어서 직접 현지 부화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것 입니다.

**김인식 :** 양계업계가 외국의 호그 사이클같이 호황과 불황의 기폭이 큰 것은 양계업계 자체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의 해결도 양계업계 자체내에서 해야지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아리 생산의 근원이 되는 GPS농장에서 P. S 판매가 허가 부화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매될 수 있고 입식된 종계는 어느 형태로든 종란이 생산되어 허가 또는 무허가 부화장을 통하여 판매되는 현실에서는 생산조절은 불가능합니다. 협회나 행정기관에서 정확한 통계조사후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어느 형태로든 통제조절 기능을 갖아야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화장 입란 능력이 2천~25백만이면 족한데도 3천 2백만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종계도 적정사육수수의 약 30%정도가 과잉 사육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황의 요인은 항상 잠재하고 있습니다.

### 1월중에 환우계 도태면 3월초 계란값 상승

**노영한 :** 다음으로 지금 가장 불황에 허덕이는 채란 업계는 새해에 언제쯤이나 경기가 회복되겠는지요?

**김정웅 :** 80년도에 계란의 절대 가격은 79년보다 높았고 8월말까지는 그런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비수기에도 그런대로 가격이 유지되었고 김장철에도 오히려 가격이 오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78년보다 크게 생산량이 줄었던 79년 보다도

18-20% 정도의 생산 감소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사료가격등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내부적으로 수지가 안맞아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초생추사로 생산실적 기준으로 보면 79년에 비하여 80년은(1월-10월기준) 4% 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고 있어 그런대로 초생추가 입식되었다고 보아지며 종계(P·S)도 20%정도가 79년 보다 더 많이 입식되어 cc 생산잠재력도 증가하여 금년 ¼ 분기에는 천만수 정도가 생산 가능하여 79년의 850만수에 비해 약 20%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cc입식을 기준으로 할때 1월에는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환우를 장려하여 1월은 채란업자가 크게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환우를 크게 조작하지만 안했으면 3월부터는 난가가 회복되리라고 전망이 되었습니다. 1월과 2월에 환우계만 도태되면 3월부터는 가격이 상승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인식** : 강제환우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6개월 후의 계란가격 전망이 어렵고 2개월 후의 예상이 가능할 때나 어떤 이유로 초생추 입식을 못했을때 기본 소득을 얻기위한 방법 등으로 환우는 각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 실시될수 있을 것입니다.

### 환우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김정웅** : 환우의 유리한점은 시기적으로 비수기에 환우를 하여 수요기에 생산하는 등 같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계란수급에 근본적인 차질을 갖어 올 수 있는 환우 장려 등은 곤란합니다.

**신정재** : 앞으로는 생산 소비만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계란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는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최근 유례없이 생선이 풍어라는데 이런것과 대체관계등도 조사 되어져야 정확한 계란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계란값 10원 오르려면 추석에나 기대

**김영환** : 작년은 일반경기의 감퇴와 농촌의 흥작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 계란의 소비가 감소할수 있는 요인이 특히 많습니다.

현재 채란 양계업은 사료값도 나오지 않는 경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어도 현재보다 계란 개당 10원이상 올라주어야 적자 경영을 면하겠는데 10원이상 올라주는 것을 추석 이전에는 기대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강제환우는 잘만 이용하면 유리한 경영을 할수도 있으나 지난번의 강제환우 장려는 시기적으로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모든 여건이 어려운 때이니 하루빨리 수수를 감소해서 생산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노영한** : 그리고 최근 부로일러가 원인모를 병으로 폐사가 많이 나오고 산란저하 증후군이나 감보로 등 계속 질병부문도 문제가 많은데 김연구관님은 81년도에 가장 조심을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순재** : 질병발생건수로 보면 79년도의 596건에 비해 80년도는 300건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방역 철저히 인한 것이 아니고 불황과 관계되는것 같습니다.

아까 원인모를 폐사라는 것은 주로 봉입체간염(IBH)에 의한 것이 많았고 빈혈등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죠. 또한 전염성기관지염 산란저하증후군, 뇌척수염등이 산란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노영한** : 장시간 감사합니다.

81년도는 계속되는 불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생산조절과 생산비절감에 힘쓰고 모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해야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안정되고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